

#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사랑' 대화: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연구자: 박종원

소속: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일반대학원/선교학 박사 재학 중)

이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과 두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슬람에도 존재한다는 무슬림 학자들의 주장에 맞서 기독교의 입장을 밝힘으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간 대화의 예를 제시하는데 있다. 2007년 10월 3일, 138명의 무슬림 학자들과 리더들이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의 공통 언어(원제: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보낸 편지는 기독교의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슬람에도 공통으로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예일 신학 대학교의 크리스천 학자들은 2007년 11월 18일 뉴욕 타임즈에 300명의 크리스천 리더들의 서명과 함께 그 편지에 동의하는 반응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진 복음주의 목사인 존 파이프(John Piper)는 크리스천 학자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충분히 잘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여겨 그들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게다가 저명한 크리스천 이슬람 학자인 고든 니켈(Gordon Nickel)도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통 토대를 볼 수 없었기에 다른 크리스천 리더들과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 왜 파이프와 니켈은 다른 크리스천들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다른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먼저 꾸란과 전통 무슬림 학자에 기초한 크리스천 이슬람 학자의 설명을 토대로 이슬람의 사랑을 살펴본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무슬림 학자들과 리더들의 두 종교에 두 계명이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무슬림 학자들과 리더들이 주장한 것과 다르게 크리스천에 의한 기독교 입장을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이슬람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무슬림이 바라보는 이슬람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다름이 밝혀진다. 또한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이슬람의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종교의 진리 주장은 타 종교인들이 아닌 그 종교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야 함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간 대화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질 때, 크리스천들도 복음을 진리로 선포할 수 있다. 이런 대화는 분명 종교간 차이를 드러내며, 그 다름을 크리스천들이 먼저 존중할 때 크리스천들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핵심어: 기독교, 이슬람, 공통 언어, 두 계명, 종교간 대화

## I. 들어가는 글

다원주의 사회는 상대주의를 통해 종교들을 같은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비슷한 입장에서 2007년 10월 3일, 138명의 무슬림 학자들과 리더들이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의 공통 언어(원제: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전 세계 크리스천들과 무슬림들 사이의 평화와 조화를 펴뜨리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Ghazi bin Muhammad, 2009: 7-43).<sup>1)</sup> 편지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비록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는 “형식적 차이점들”이 존재하지만 첫 계명(하나님을 사랑하라)과 두 번째 계명(이웃을 사랑하라)은 꾸란 3:64에서 기인한 “공통의 언어(여기부터 ACW)”다(Ghazi bin Muhammad, 2009: 21). 예일 신학 대학교(Yale Divinity School)의 크리스천 학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2007년 11월 18일 뉴욕 타임즈에 300명의 크리스천 리더들의 서명과 함께 그 편지에 동의하는 반응을 발표하였다(Volf, Cumming, and Yarrington, 2010: 51-75).<sup>2)</sup> 그러나 잘 알려진 복음주의 목사인 존 파이퍼(John Piper)는 크리스천 학자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충분하게 잘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여겨 그들의 태도를 비판하였다.<sup>3)</sup> 게다가 저명한 크리스천 이슬람 학자인 고든 니켈(Gordon Nickel)도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하나님<sup>4)</sup> 사랑에 대한 공통 토대를 볼 수 없었기에 다른 크리스천 리더들과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sup>5)</sup> 왜 파이퍼와 니켈은 다른 크리스천들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다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와 이슬람에서 동일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연구하기 전에 몇 가지 크리스천들과 무슬림들의 선이해가 필요하다. 종교 간의 대화

---

1) 다음 웹 사이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A Common Word, “A Common Word,” <http://www.acommonword.com/the-acw-document/>. (검색일 2015. 03. 30)

2) 다음 웹 사이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A Common Word, “Christian Responses,” see under “32. Response of over 300 leading Christian scholars to A Common Word,” <http://www.acommonword.com/category/site/christian-responses/>. (검색일 2015. 03. 30)

3) 이와 관련된 웹 비디오는 다음 사이트에서 시청가능하다: [http://www.desiringgod.org/media/video/20080118\\_interview.mp4](http://www.desiringgod.org/media/video/20080118_interview.mp4). (검색일 2015. 03. 30)

4) 한국어 꾸란은 알라를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명칭으로 번역하였다. 꾸란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같은 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몇몇 증거만을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다. 언어학적으로 중동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중동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꾸란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동일한 존재로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분명 둘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구분해서 지칭하도록 하며 이슬람과 기독교를 동시에 포함할 경우에도 알라 대신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꾸란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비교, 대조 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선행되었다. Badru D. Kateregga and David W Shenk, *A Muslim and a Christian in Dialogue*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97), 27-35, 115-121 과 Timothy C. Tennent, “Is the Father of Jesus the God of Muhammad?”, in *Theology in the Context of World Christianit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7), 25-52를 보라.

5) Gordon Nickel, “The Qur’an in the Light of the Gospel” (강의, Deerfield, IL, 2013. 3. 18 일).

에서는 보통 논쟁으로 치닫기 쉬운데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쌍방이 서로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슬림들이 말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들이 이슬람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토대로 비판한다. 또 무슬림들도 기독교에 대해 말할 때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던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논쟁 속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가득하다. 하버드 대학교 세계종교연구소 소장이었던 윌프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한 종교에 관한 어떤 진술도 그 종교 신자들에 의해 인정될 수 없다면 그것은 무효하다(Wilfred Cantwell Smith, 1959: 42).” 그러므로 우리는 타종교인이 용납할 수 없는 진술이 그 종교의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쟁을 의도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상대 종교인의 진술을 토대로 세계관적 비교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소고는 먼저 꾸란과 무슬림 학자에 기초한 니켈의 설명을 토대로 이슬람에 인간을 향한 알라의 사랑이 존재하는지, 이슬람에 알라와 이웃들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ACW 무슬림 대표자들의 진술을 통해 동일하게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슬림들 사이에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런 후에 본 글은 ACW 무슬림 대표자들이 주장하던 대로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동일한 것인지 기독교적 입장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런 세계관적 비교를 통해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학적 함축과 종교간 대화를 위한 선교학적 함축을 도출하며 끝맺을 것이다.

## II. 크리스천이 바라본 이슬람의 사랑

만약 크리스천들이 이슬람에 존재하는 알라의 사랑에 대해 알기 원한다면 먼저 그들은 꾸란을 참조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이 장에서는 몇 꾸란 구절들과 이슬람 학자들의 알라의 사랑과 알라와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니켈의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 1. 하나님의 사랑

꾸란에 명시되어 있는 알라의 사랑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 중 가장 흔하게 쓰인 단어는 “ahbba”이다. 이 단어는 “to love, to like, to approve, to esteem, or to take pleasure in”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Lane, 1874: 495; Kassis, 1985: 509-511). 니켈은 이 단어가 알라를 주어로, 사람을 목적으로 39번 사용된 것을 세분화하였다. 크게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7번은 알라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이며, 22번은 알라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이다(Nickel, 2009: 229). 이 중에 알라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라는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꾸란2:195; 3:134, 148; 5:13, 93); 회개하는 자들(꾸란2:222); 깨끗한 자들(꾸란2:222; 9:108); 무함마드를 따르는 자들(꾸란3:31);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꾸란3:76); 꾸준한 자들(꾸란3:146); 알라를 믿는 자들(꾸란3:159); 공평하게 판단하는 자들(꾸란5:42; 49:9; 60:8); 의로운 자들(꾸란9:4, 7); 알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꾸란61:4)이 그들이다.<sup>6)</sup>

6) 본 연구의 모든 꾸란 본문에 대해서는 부록을 보라.

한편 알라는 특정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죄를 저지른 자들(꾸란2:190; 5:87; 7:55), 자신을 더럽힌 자들(꾸란2:205); 경건치 못하고 죄가 있는 자들(꾸란2:276), 불신자들(꾸란3:32; 30:45), 사악한자들(꾸란3:57, 140; 42:40), 교만한자들(꾸란4:36; 16:23; 31:18; 57:23), 방탕한자들(꾸란6:141)의 경우다. 이런 관찰을 통해 근대 무슬림 학자인 무함마드 다우드 라바는 캠브리지에서 자신의 박사논문에서 알라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결론을 맺었다(Muhammad Daud Rahbar, 1960: 225).

때때로 꾸란에서 알라의 사랑은 용서와 자비와 함께 연결되기도 한다(꾸란3:31; 11:90; 85:14). 그래서 네덜란드의 출판사인 브릴(Brill)을 통해 출간된 꾸란 백과사전에 “사랑과 애정”부분을 기록한 데니스 그릴에 따르면 알라의 사랑이 자비와 용서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Denis Gril, 2003: 233). 그러나 니켈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같은 진술이 꾸란에 없다는 것을 논박하며 꾸란의 알라는 앞서 살펴본 구절들을 토대로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Nickel, 2009: 234).

이런 논의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슬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단정내리기 쉽다. 하지만 차후에 살펴볼 ACW 무슬림 대표자들의 입장은 이슬람에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 2.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사람들이 알라를 사랑하는 경우에 있어서 꾸란에 다섯 번 사용된 동사는 알라의 사랑과 같이 “ahbba”이다(꾸란2:165; 5:54; 3:31; 2:177; 76:8)(Nickel, 2009: 231). 무슬림들은 꾸란 2:165에서 알라를 사랑하지만 꾸란5:54에서 알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무슬림들에게 겸손하고 불신자들에게 엄격하다는 부연 설명이 덧붙여 있다. 게다가 만약 사람들이 알라를 사랑하면 그들은 무함마드를 따라야 한다(꾸란 3:31). 그러면 알라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꾸란 2:177와 76:8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알라인지 특정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Nickel, 2009: 232).<sup>7)</sup> 앞의 다섯 구절들을 통해 꾸란에 알라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의미심장하다(Nickel, 2009: 235).

무슬림 전통 주석들(Muqātil ibn Sulaymān (d.150 A.H./767 A.D.), al-Ṭabarī (d.310 A.H./923 A.D.), al-Zamakhsharī (d.538 A.H./1144 A.D.))은 아무도 꾸란 3:31을 알라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을 명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Nickel, 2009: 240-243). 오히려 니켈은 al-Zamakhsharī가 알라를 순종하는 것이 알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수피의 관점을 논박한 것을 지적하며 이런 전통적 관점들이 알라와 인간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간주하는 경향을 드러낸다고 밝힌다(Nickel, 2009: 242). 그러나 라바(Rahbar)의 명료한 설명은 왜 꾸란에 알라에 대한 사랑에 관한 명령이 없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랑의 관계는...상호적인 것이다. 꾸란은 결코 알라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지 않는다. 이것은 알라 스스로가 오직 철저히 경건한 자들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알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알라가 감정을 주고받는 자임을 가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하는 것은 누구나 완벽하게 경건하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한다. 그런 전제를 꾸란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Rahbar, 1960: 180, 필자 번역)

7) 다른 영어 버전들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다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he Holy Qur'an, <http://Qur'an.com/2/177>. (검색일 2015. 03. 30)

만약 무슬림들이 알라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알라와 동일한 거룩함과 경건함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무슬림 전통 주석가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 우리는 역시 이슬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기 쉽다. 하지만 ACW 무슬림 대표들의 설명은 전통 무슬림 주석가들과 달리한다.

### 3.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

니켈은 동사 *ahbba*가 사용된 꾸란 3:119; 9:24; 59:9를 이웃 사랑의 예로 살펴본다(Nickel, 2009: 232). 앞에 세 구절들은 전쟁이나 갈등의 상황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니켈은 무슬림들이 비 무슬림들을 사랑할 수 없으며(꾸란3:118; 9:23), 꾸란 59:9는 무슬림들이 다른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경우라고 설명한다(Nickel, 2009: 233).

한편 사랑에 해당하는 명사 “*mawadda*”가 8번 사랑과 애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꾸란4:73; 5:82; 29:25; 30:21; 42:23; 60:1에서 두 번, 60:7)(Kassis, 1985: 1255). 이 구절들 중에 오직 꾸란5:82만 무슬림들이 크리스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꾸란 해석학의 대가이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슬람 학자인 제인 데이먼 맥얼리프는 무슬림 전통 주석들을 통해 무슬림들에 의해 사랑받는 명시된 크리스천들은 무슬림들의 믿음을 인정한 특별한 크리스천들이라고 논의했다(Jane Dammen McAuliffe, 1991: 204-239). 게다가 무슬림들은 비 무슬림들을 사랑할 수 없다(꾸란60:1). 비록 무슬림들과 적들 사이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만(꾸란60:7), 거기에는 무슬림들과 비 무슬림들 사이에 조건이 있다. 무슬림들은 종교적 이유로 무슬림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는 자들에게만 친절하고 다정할 수 있다(꾸란60:8-9). 이런 의미에서 그릴(Gril)은 알라가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나 우정은 믿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면 꾸란에서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Gril, 2003: 234). 마지막으로 무슬림들은 무슬림들의 친척들일지라도 알라와 알라가 보낸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랑할 수 없다(꾸란5:82). 그 외에 다른 구절들은 다른 종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애정이 없음(꾸란4:73), 우상 숭배(꾸란29:25), 부부간의 사랑(꾸란30:21), 무함마드의 친척들에 대한 사랑(꾸란42:23). 앞의 조사처럼 그릴은 이웃 사랑은 오직 무슬림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비 무슬림들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 무슬림들이 무슬림들에게 적의가 없다는 것을 보일 때 그런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다(Gril, 2003: 236).

위의 논의를 살펴볼 때 우리는 꾸란에 모든 인류를 보편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에는 기독교처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ACW 무슬림 대표자들은 반대의 주장을 펼친다.

### III. 무슬림이 바라본 이슬람의 사랑

꾸란과 몇 이슬람 학자들에 기초할 때 이슬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아주 달라 보인다. 그러나 2008년 7월 예일 대학교에서 ACW 무슬림 대표 중 한 사람으로 토론에 참석했던 레자 샤-카즈미는 비록 알라는 꾸란에서(85:14; 11:90) 사랑하는 분(al-Wadūd)으

로 묘사되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이슬람의 신학적 렌즈로만 알라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알라는 사랑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라 논박했다(Reza Shah-Kazemi, 2010: 88-89). 계속해서 그에 따르면 무슬림 신학자들은 알라의 사랑을 알라의 본성과 연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알라와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꾸란42:11)(Shah-Kazemi, 2010: 93). 무슬림 신학자들에게 “사랑과 같은 어떤 자질이든 알라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tawhīd”<sup>8)</sup>와 알라의 초월성을 여기는 심각한 죄다(Shah-Kazemi, 2010: 93). 이것은 마치 ACW 무슬림 대표자들에게는 이슬람에 존재하는 알라의 사랑이 앞에서 살펴본 이슬람 학자들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ACW 무슬림 대표자들의 관점을 살펴보겠다.

## 1. 하나님의 사랑

샤-카즈미는 알라의 사랑을 설명할 때 신비주의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 그는 알라의 지식은 영적인 것이기에 신학 대신에 오직 “영적 훈련”만이 “알라의 지식, 그의 자질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hah-Kazemi, 2010: 95).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알라의 가장 깊은 영적 특성을 알기 원한다면 그들은 영적 훈련으로 그것을 이해한 자들의 말, 소위 말하는 수피들의 작품을 참조해야 한다고 덧붙인다(Shah-Kazemi, 2010: 95). 이런 의미에서 샤-카즈미는 알라의 사랑 없이는 아무런 창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12세기 스페인의 저명한 수피 신비주의자인 이븐 아라비(Ibn al-‘Arabi)의 글을 참조한다.

나[알라]는 숨겨진 보물이었고 알려지는 것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알려지기 위해 피조물을 창조했다. 만약 이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절대로 이런 구체적인 실재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비 실재에서 실재로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움직임이었다((Shah-Kazemi, 2010: 99, 필자 번역).<sup>9)</sup>

즉, 알라는 피조물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고, 그 원함에 의해 세상을 창조했다. 알라가 알려지기를 원한 것이 알라의 사랑이었다.

예일 대학의 토론에서 또 다른 ACW 무슬림 대표자며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슬람학 교수인 사이드 후세인 나슬(Seyyed Hossein Nasr)은 그의 책 *Islamic Spirituality*에서 이것을 더욱 명확히 한다.

알라가 먼저 인간을 사랑하고 “자신의 얼굴”을 인간에게 향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알라를 사랑하고 인간의 얼굴을 알라에게 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과 신성한 질서 사이에는 상호성이 존재한다. 또한 인간은 알라가 인간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알라를 향해 돌아설 수 없다(Nasr, 1987: 108, 필자 번역).

8) 이슬람에서 알라의 유일성을 지칭하는 교리로서 엄격하게 비 삼위일체 유일신을 지칭한다. Tennent, *Theology in the Context of World Christianity*, 284를 보라.

9) 원문 Muhyiddin Ibn al-‘Arabi, *The Ringstones of Wisdom*, trans. Caner Dagli (Chicago: Kazi Publications, 2004), 261-62. 알려진다는 의미는 이븐 아바스(Ibn ‘Abbas)에 의하면 예배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알라를 예배한다는 것은 알라를 안다는 의미이다. 샤-카즈미 99페이지 각주 23 번을 보라.

이런 이유로 ACW 무슬림 대표자들은 알라가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의미를 먼저 피조물을 사랑했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계속해서 샤-카즈미에 따르면, 알라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선함, 아름다움, 자비, 은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알라의 본질적 특성이다(Shah-Kazemi, 2010: 101). ACW 무슬림 대표자 중의 한 사람인 가지 빈 무함마드 왕자는 본래 이집트 카이로 알아즈 대학에서의 박사 논문이었던 것을 책으로 엮은 *Love in the Holy Qur'an*에서 알라의 사랑은 그의 자비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Ghazi bin Muhammad, 2010: 15-20). 샤-카즈미 또한 알라의 사랑은 꾸란에서 그의 자비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Shah-Kazemi, 2010: 102). 이 주장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꾸란의 매 장(수라)마다, 9장을 제외하고, 이 구절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God, The Loving Compassionate (al-Rahmān), The Loving Merciful (al-Rahim))(Shah-Kazemi, 2010: 103).”

샤-카즈미는 또한 이 구절에서 자비(rahma)가 “자비와 사랑의 결합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한다(Shah-Kazemi, 2010: 103). 이에 대한 증거로 그는 사랑의 의미를 아랍어와 히브리어에서 자비(rahma)로 간주하며 시편18:1에서 자비(rahma)를 사랑으로 번역한 유대인 학자인 벤-쉐메스(Ben-Shemesh)의 예를 든다(Shah-Kazemi, 2010: 104).

또한 샤-카즈미는 이 사랑(rahma)은 창조의 근원임을 또 다른 저명한 수피 신비주의자였던 알-가잘리(Al-Ghazzālī)를 통해 설명한다.

알라의 사랑(al-Rahmān)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사랑으로 마음이 풀린 알라 자신인데 먼저 그들을 창조함으로; 둘째는 그들을 믿음과 구원의 의미로 인도함으로; 셋째는 그들을 다음 세상에서 행복하게 만들기로; 넷째는 자신의 고귀한 얼굴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함으로다(Shah-Kazemi, 2010: 106, 필자 번역).<sup>10)</sup>

이런 의미에서 알라의 사랑(al-Rahmān)은 창조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샤-카즈미는 꾸란 11:119; 7:156에 있는 것처럼 알라가 세상을 “사랑(rahma)에 의해서와 사랑(rahma)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랑(rahma)을 위해서...사랑(rahma)안에서”창조했다고 주장한다(Shah-Kazemi, 2010: 106).

그러면 왜 알라는 꾸란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않고 분노하는가? 이 질문들에 샤-카즈미는 하디스의 다음 진술에 주목한다: “[나의]알라의 자비는 [나의]알라의 분노에 선행한다(Shah-Kazemi, 2010: 105).” 덧붙여서 그는 꾸란 17:13; 4:79에 기초하여 알라의 분노는 본질적이지 않고 “알라의 자비에 인간 측에서 상호성의 부족에 수반되는 외적 결과”로 부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Shah-Kazemi, 2010: 107). 비슷하게 가지 빈 무함마드도 알라의 분노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할 때 알라에게서 자비의 결핍으로 본질적이지 않다고 설명 한다(Ghazi bin Muhammad, 2010: 28-30).

이런 논의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슬람에도 있는 것처럼 단언하기 쉽다. 하지만 뒤 이어 제시되는 기독교의 입장은 둘 사이의 큰 차이점을 드러낸다.

---

10) 원문 Al-Ghazālī, *The Ninety-Nine Beautiful Names of God*, trans. David B. Burrell and Nazih Daher (Cambridge: Islamic Texts Society, 1999), 54.

## 2.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무슬림들은 꾸란 47:19; 48:29에서 기원한 샤하다(Shahadahs: There is no god but Allah, Muhammad is the messenger of Allah-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이다)의 의미를 중요시한다. 마찬가지로 ACW 무슬림 편지도 무슬림들이 알라의 초월성을 믿고 알라에게 헌신하기에 그들이 알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Ghazi bin Muhammad, 2009: 9-18). 나슬은 알라를 사랑하는 것과 “알라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동일시한다(Nasr, 2010: 116). 비슷한 관점에서 예일 대학 토론에서 ACW 무슬림 대표중의 한 사람인 하비브 알리 알-지프리는 왜 사람들이 알라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Habib Ali Al-Jifri, 2010: 81-82). 기본적으로 알라는 아름다움 그 자체인데 사람들의 영은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고유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에게 자비로운 자를 자동적으로 사랑하는데 알라가 자비 그 자체라는 것이다. 마지막 이유는 인간은 항상 결점이 많은 불완전한 자인데 알라는 완벽하기에 알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지프리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이유는 인간이 알라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도달하는 단계들이며 인간은 알라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단계가 높아져 알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Ali Al-Jifri, 2010: 83-84). 이런 논의들을 살펴볼 때 ACW 무슬림 대표자들에게 무슬림들이 알라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충분하게 보인다.

## 3.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

ACW 무슬림 편지에는 하디스의 무함마드 명령을 인용하며 무함마드가 무슬림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했다고 진술되어 있다(Ghazi bin Muhammad, 2010: 19-20). 이 사랑은 자비와 상호 교환적이며 사랑의 방법은 꾸란 2:177; 3:92에 기초한 관용과 자기희생이다(Ghazi bin Muhammad, 2010: 9-18). 계속해서 ACW 무슬림 대표자들은 인간은 창조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알라 사랑으로부터 기원한다고 주장한다(Nasr, 2010: 117; Al-Jifri, 2010: 84). 이에 대한 예로 알-지프리는 하디스에 있는 아부 하니파(Abū Hanīfa)의 이야기를 인용한다(Al-Jifri, 2010: 85-86). 이야기 안에서 하니파(Hanifa)는 자신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이웃들을 선으로 대했기에, 누구든지 알라를 사랑하는 자는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자애롭게 남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논의를 볼 때 이슬람 안에도 기독교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 IV.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적용에 대한 비교

ACW 편지와 무슬림 대표자들에 기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전통 무슬림 학자들과 꾸란에 기초한 니켈의 관점에서는 ACW 무슬림 대표자들의 관점과 유사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슬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입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의 입장을 그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한다면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입장도 ACW 편지와 무슬림 대표자들에 의해 주장될 것이 아니라 크



리스천들에 의해 주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이 ACW 편지와 무슬림 대표자들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대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두 계명의 적용 또한 두 종교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ACW 무슬림 대표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설명할 때 이슬람 신비주의(Sufism)에 의존하기 때문에 몇 수피 학자들의 글도 포함될 것이다.

## 1. 하나님의 사랑

먼저 두 종교에서 설명하는 사랑에 기초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다르다. ACW 편지와 무슬림 대표자들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은 먼저 피조물을 사랑하시기에 이슬람과 기독교는 공통 기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무슬림들의 주장과 비슷하게 서구의 이란 이슬람 연구에 권위자인 헨리 코빈은 알라의 본질이 피조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알라가 피조물을 사랑한다고 설명한다(Henry Corbin, 1969: 148-149). 그에 따르면 알라는 근원적 아름다움이고 인간은 그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따라서 인간의 알라를 향한 사랑은 피조물에 드러나는 알라의 아름다움이며 인간은 이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알라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알라가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라가 피조물에 존재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코빈은 알라의 사랑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상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Corbin, 1969: 149). 그러나 신성한 사랑의 상호성에 대한 설명은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큰 차이점이 된다. 만약 태초에 피조물이 없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알라가 사랑이 되는가? 크리스천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한 본질에 세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프린스턴 신학교 명예 조직신학 교수인 대니얼 미글리오레의 견해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창조 이전부터 절대적으로 상호적이며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Daniel L. Migliore, 1991: 67). 그러나 ACW 무슬림 대표자들이 말하는 이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알라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태초 이전에는 어떻게 알라의 본질이 사랑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하나님의 본질이 다르기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원과 크기도 달라진다. ACW 편지와 무슬림 대표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사랑에 기초하여 창조하셨기에 이것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유사점으로 보여진다. 이슬람 신비주의의 저명한 학자인 윌리엄 치틱은 꾸란, 하디스, 이븐 알-아라비, 알-가잘리에 기초하여 알라가 피조물에 의해 인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창조의 근원을 알라의 사랑으로 주장한다(William C. Chittick, 2010: 174-180; 2011: 107-108). 유사하게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피조물을 통해 나타내셨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에서 기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것이다(Migliore, 1991: 85; 2008: 224). 게다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을 통해 보편적으로 계시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특별히 인간을 위해 나타난 것으로 주장된다(요일4:9). ACW 무슬림 편지는 얼마나 알라가 인간을 사랑하는지 말해주지 않는 반면 기독교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한다.

이어서 두 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또 다른 함의는 창조 원인이다. 알라의 사랑이 이슬람에서는 창조의 유일한 원인이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43:7; 시19:1).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 때문이라고 트리니티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인 웨인 그루뎀은 주장한다(Wayne A. Grudem, 2000: 271).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16:27; 막8:38; 요1:14) 세상은 아버지의 뜻(계4:11)에 의해, 아들을 위해서(골1:16; 히1:12), 성령을 통해서(창1:2) 창조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창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Migliore, 1991: 90).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원과 확증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적합성이 다르다. ACW 무슬림 편지는 예수께서 모세와 무함마드가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중요성을 인정하셨기에 두 계명들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사이의 공통 기반이라고 주장한다(Ghazi bin Muhammad, 2009: 21-26). 만약 예수님이 단지 두 계명들을 인정하셨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ACW 무슬림 대표자들이 놓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사라는 것이다(마5:17).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들을 십자가로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요14:31; 빌2:8)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의 예를 보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를 보여 주셨다(요13:34; 15:12; 눅23:24; 롬5:6-10).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은 두 계명들이 예수님에 의해 구약에서 인용되었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두 계명들을 실행하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두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조니 아와드는 주장한다(Johnny B. Awwad, 2009: 83). 성부가 시작하시고(요일4:10) 성자가 확증하신(갈2:20) 그 사랑으로 성령께서 크리스천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롬15:30; 갈5:22)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해야만 한다. 이렇게 기독교와 이슬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을 실천하는 동력과 동기가 첨예하게 다른 것이다.

## 2. 사랑의 적용(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ACW 무슬림 편지에서 이웃 사랑의 증거로 인용된 두 하디스 구절들이 “형제”와 “이웃”이라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였기에 무슬림들이 다른 대상을 의미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Ghazi bin Muhammad, 2009: 19). ACW 무슬림 대표들은 이것에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종교간 연구 교수며 크리스천과 무슬림 관계에 대한 연구로 알려진 오드베온 라에르비키는 이슬람에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꾸란, 하디스, 무슬림 고전 주석들과 근대 학자들을 살펴보면서 이슬람과 기독교 둘 다 “형제” 사랑이란 용어를 각 종교의 내적 결속력을 위해, “이웃” 사랑이란 용어를 각 종교의 우주적 의무를 위해 사용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Oddbjørn Leirvik, 2010: 367-368). 그러므로 ACW 무슬림 편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이라는 동일한 계명이 이슬람과 기독교 둘 다에 주어진 것처럼 보인다(Ghazi bin Muhammad, 2009: 19-20).

그러나 이웃 사랑의 기초와 방법이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매우 다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을 표현한 십자가가 이웃 사랑의 근원이며 모델이다. 한편 이슬람에는 이웃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아부 하니파와 무함마드의 명령들이 이웃 사랑의 기초와 모델이다(Ghazi bin Muhammad, 2009: 19; Al-Jifri, 2010: 85-86).

또 다른 큰 불일치는 이웃에 대한 정체성이다. ACW 무슬림 학자들은 이웃의 정체성에 대해 밝히지

않는 반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자명한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은 주장한다(Jon Hoover, 2009: 62; George Sabra, 2009: 96; Awwad, 2009: 83-85). 비록 ACW 편지가 인용한 성경적 참조들이(마22:38-40; 막 12:31) 이웃의 정체성을 제공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분명하게 정의하셨다(눅10:25-37)(Ghazi bin Muhammad, 2009: 23-24). 예수님의 정의를 통해 크리스천들은 “육체적 가까움, 가족적 연분,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 사회문화적 소속감”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아와드는 주장한다(Awwad, 2009: 85). 더군다나 성경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이웃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마5:43-44; 눅6:27-28).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무슬림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는 자만을 사랑하는(꾸란 60:8-9) 이슬람과 기독교의 분기점이다.

## V. 나가는 글

하나님의 사랑과 첫째, 둘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ACW 무슬림 대표자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와 떨어져서 설명될 수 없기에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모순되어 보인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뿌리인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ACW 무슬림 편지는 그런 차이들이 “형식적”이라고 간주하는 한편 이것들은 기독교에 본질적인 차이들이다(Ghazi bin Muhammad, 2009: 21). 에즈버리 신학교 총장인 티모시 테넌트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핵심 차이점이라고 주장한다(Timothy C. Tennent, 2007: 38). 그런 교리 없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종교들에 존재하는 신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피상적 유사점이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지만 꾸란 3:64에 기초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대하는 ACW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통 언어가 되기 힘들다고 하겠다(Ghazi bin Muhammad, 2009: 22).

오히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심지어 한 종교 안에도 다양한 입장과 지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무슬림들이 크리스천들이 인식하는 이슬람 대신에 오직 무슬림들이 인식하는 이슬람만이 진짜 무슬림의 입장이라고 주장한다면, 크리스천들 또한 무슬림들이 인식하는 기독교 대신에 크리스천들이 인식하는 기독교가 참 크리스천의 입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간 대화의 기본 원칙으로 각 종교의 입장은 각 종교인들이 해야 함을 제안한다. 아울러 참 종교간 대화가 서로의 차이를 알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중하고 용납한다면 크리스천들은 종교간 대화를 기독교 진리 선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종교간 대화는 크리스천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죄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의 사랑을 쏟으신 것처럼 종교간 대화에서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타 종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징죄하는 대신 복음의 탁월성을 드러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서 나타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는 우월적 태도’나 ‘어떻게 해서든 토론에서 이겨 상대를 설득시키려는 태도’는 타 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에게서 염증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말한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임을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전술적 이유에서 잠시 뒤로 밀어 둘 필요가 있다(Alister

McGrath, 1992=김석원 역, 2013: 317).” 일단 진리를 보유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용납하여 상대 세계관의 허점을 이해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들은 역으로 이웃 사랑을 몸소 보여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다. 다른 비 진리들이 아무리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노력해도 오히려 진리의 탁월성과 수월성은 그들 안에서 여유 있게 빛날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타 종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고 나아가 그 탁월성을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기독교의 참된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4:9 개역개정)*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부록11)

2:165

Yet there are men who take (for worship) others besides Allah, as equal (with Allah): They love them as they should love Allah. But those of Faith are overflowing in their love for Allah. If only the unrighteous could see, behold, they would see the penalty: that to Allah belongs all power, and Allah will strongly enforce the penalty.

2:177

It is not righteousness that ye turn your faces Towards east or West; but it is righteousness- to believe in Allah and the Last Day, and the Angels, and the Book, and the Messengers; to spend of your substance, out of love for Him, for your kin, for orphans, for the needy, for the wayfarer, for those who ask, and for the ransom of slaves; to be steadfast in prayer, and practice regular charity; to fulfil the contracts which ye have made; and to be firm and patient, in pain (or suffering) and adversity, and throughout all periods of panic. Such are the people of truth, the Allah-fearing.

2:190

Fight in the cause of Allah those who fight you, but do not transgress limits; for Allah loveth not transgressors.

2:195

And spend of your substance in the cause of Allah, and make not your own hands contribute to (your) destruction; but do good; for Allah loveth those who do good.

2:205

When he turns his back, His aim everywhere is to spread mischief through the earth and destroy crops and cattle. But Allah loveth not mischief.

2:222

They ask thee concerning women's courses. Say: They are a hurt and a pollution: So keep away from women in their courses, and do not approach them until they are clean. But when they have purified themselves, ye may approach them in any manner, time, or place ordained for you by Allah. For Allah loves those who turn to Him constantly and He loves those who keep themselves pure and clean.

---

11) 모든 꾸란 구절은 한국어 버전도 있지만 번역상의 오류가 많아 Yusuf Ali 버전을 인용하였다.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라. the Holy Qur'an, <http://quran.com>. (검색일 2015. 03. 30)

2:276

Allah will deprive usury of all blessing, but will give increase for deeds of charity: For He loveth not creatures ungrateful and wicked.

3:31

Say: "If ye do love Allah, Follow me: Allah will love you and forgive you your sins: For Allah is Oft-Forgiving, Most Merciful."

3:32

Say: "Obey Allah and His Messenger": But if they turn back, Allah loveth not those who reject Faith.

3:57

"As to those who believe and work righteousness, Allah will pay them (in full) their reward: but Allah loveth not those who do wrong."

3:64

Say: "O People of the Book! come to common terms as between us and you: That we worship none but Allah; that we associate no partners with him; that we erect not, from among ourselves, Lords and patrons other than Allah." If then they turn back, say ye: "Bear witness that we (at least) are Muslims (bowing to Allah's Will).

3:76

Nay.- Those that keep their plighted faith and act aright,-verily Allah loves those who act aright.

3:92

By no means shall ye attain righteousness unless ye give (freely) of that which ye love; and whatever ye give, of a truth Allah knoweth it well.

3:118

O ye who believe! Take not into your intimacy those outside your ranks: They will not fail to corrupt you. They only desire your ruin: Rank hatred has already appeared from their mouths: What their hearts conceal is far worse. We have made plain to you the Signs, if ye have wisdom.

3:119

Ah! ye are those who love them, but they love you not,- though ye believe in the whole of the Book. When they meet you, they say, "We believe": But when they are alone, they bite off the very tips of their fingers at you in their rage. Say: "Perish in you rage; Allah knoweth well all the secrets of the heart."

3:134

Those who spend (freely), whether in prosperity, or in adversity; who restrain anger, and pardon (all) men;- for Allah loves those who do good:-

3:140

If a wound hath touched you, be sure a similar wound hath touched the others. Such days (of varying fortunes) We give to men and men by turns: that Allah may know those that believe, and that He may take to Himself from your ranks Martyr-witnesses (to Truth). And Allah loveth not those that do wrong.

3:146

How many of the prophets fought (in Allah's way), and with them (fought) Large bands of godly men? but they never lost heart if they met with disaster in Allah's way, nor did they weaken (in will) nor give in. And Allah Loves those who are firm and steadfast.

3:148

And Allah gave them a reward in this world, and the excellent reward of the Hereafter. For Allah Loveth those who do good.

3:159

It is part of the Mercy of Allah that thou dost deal gently with them Wert thou severe or harsh-hearted, they would have broken away from about thee: so pass over (Their faults), and ask for (Allah's) forgiveness for them; and consult them in affairs (of moment). Then, when thou hast Taken a decision put thy trust in Allah. For Allah loves those who put their trust (in Him).

4:36

Serve Allah, and join not any partners with Him; and do good- to parents, kinsfolk, orphans, those in need, neighbours who are near, neighbours who are strangers, the companion by your side, the wayfarer (ye meet), and what your right hands possess: For Allah loveth not the arrogant, the vainglorious:-

4:73

But if good fortune comes to you from Allah, they would be sure to say – as if there had never been Ties of affection between you and them – "Oh! I wish I had been with them; a fine thing should I then have made of it!"

4:79

Whatever good, (O man!) happens to thee, is from Allah; but whatever evil happens to thee, is from thy (own) soul. and We have sent thee as a messenger to (instruct) mankind. And enough is Allah for a witness.

5:13

But because of their breach of their covenant, We cursed them, and made their hearts grow hard: they change the words from their (right) places and forget a good part of the message that was sent them, nor wilt thou cease to find them- barring a few – ever bent on (new) deceits: but forgive them, and overlook (their misdeeds): for Allah loveth those who are kind.

5:42

(They are fond of) listening to falsehood, of devouring anything forbidden. If they do come to thee, either judge between them, or decline to interfere. If thou decline, they cannot hurt thee in the least. If thou judge, judge in equity between them. For Allah loveth those who judge in equity.

5:54

O ye who believe! if any from among you turn back from his Faith, soon will Allah produce a people whom He will love as they will love Him,- lowly with the believers, mighty against the rejecters, fighting in the way of Allah, and never afraid of the reproaches of such as find fault. That is the grace of Allah, which He will bestow on whom He pleaseth. And Allah encompasseth all, and He knoweth all things.

5:82

Strongest among men in enmity to the believers wilt thou find the Jews and Pagans; and nearest among them in love to the believers wilt thou find those who say, "We are Christians": because amongst these are men devoted to learning and men who have renounced the world, and they are not arrogant.

5:87

O ye who believe! make not unlawful the good things which Allah hath made lawful for you, but commit no excess: for Allah loveth not those given to excess.



5:93

On those who believe and do deeds of righteousness there is no blame for what they ate (in the past), when they guard themselves from evil, and believe, and do deeds of righteousness,- (or) again, guard themselves from evil and believe,- (or) again, guard themselves from evil and do good. For Allah loveth those who do good.

6:141

It is He Who produceth gardens, with trellises and without, and dates, and tilth with produce of all kinds, and olives and pomegranates, similar (in kind) and different (in variety): eat of their fruit in their season, but render the dues that are proper on the day that the harvest is gathered. But waste not by excess: for Allah loveth not the wasters.

7:55

Call on your Lord with humility and in private: for Allah loveth not those who trespass beyond bounds.

9:4

(But the treaties are) not dissolved with those Pagans with whom ye have entered into alliance and who have not subsequently failed you in aught, nor aided any one against you. So fulfil your engagements with them to the end of their term: for Allah loveth the righteous.

9:7

How can there be a league, before Allah and His Messenger, with the Pagans, except those with whom ye made a treaty near the sacred Mosque? As long as these stand true to you, stand ye true to them: for Allah doth love the righteous.

9:23

O ye who believe! take not for protectors your fathers and your brothers if they love infidelity above Faith: if any of you do so, they do wrong.

9:24

Say: If it be that your fathers, your sons, your brothers, your mates, or your kindred; the wealth that ye have gained; the commerce in which ye fear a decline: or the dwellings in which ye delight - are dearer to you than Allah, or His Messenger, or the striving in His cause;- then wait until Allah brings about His decision: and Allah guides not the rebellious.

9:108

Never stand thou forth therein. There is a mosque whose foundation was laid from the first day on piety; it is more worthy of the standing forth (for prayer) therein. In it are men who love to be purified; and Allah loveth those who make themselves pure.

11:90

"But ask forgiveness of your Lord, and turn unto Him (in repentance): For my Lord is indeed full of mercy and loving-kindness."

11:119

Except those on whom thy Lord hath bestowed His Mercy: and for this did He create them: and the Word of thy Lord shall be fulfilled: "I will fill Hell with jinns and men all together."

16:23

Undoubtedly Allah doth know what they conceal, and what they reveal: verily He loveth not the arrogant.

17:13

Every man's fate We have fastened on his own neck: On the Day of Judgment We shall bring out for him a scroll, which he will see spread open.

29:25

And he said: "For you, ye have taken (for worship) idols besides Allah, out of mutual love and regard between yourselves in this life; but on the Day of Judgment ye shall disown each other and curse each other: and your abode will be the Fire, and ye shall have none to help."

30:21

And among His Signs is this, that He created for you mates from among yourselves, that ye may dwell in tranquillity with them, and He has put love and mercy between your (hearts): verily in that are Signs for those who reflect.

30:45

That He may reward those who believe and work righteous deeds, out of his Bounty. For He loves not those who reject Faith.

31:18

"And swell not thy cheek (for pride) at men, nor walk in insolence through the earth; for Allah loveth not any arrogant boaster.

42:11

(He is) the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He has made for you pairs from among yourselves, and pairs among cattle: by this means does He multiply you: there is nothing whatever like unto Him, and He is the One that hears and sees (all things).

42:23

That is (the Bounty) whereof Allah gives Glad Tidings to His Servants who believe and do righteous deeds. Say: "No reward do I ask of you for this except the love of those near of kin." And if any one earns any good, We shall give him an increase of good in respect thereof: for Allah is Oft-Forgiving, Most Ready to appreciate (service).

49:9

If two parties among the Believers fall into a quarrel, make ye peace between them: but if one of them transgresses beyond bounds against the other, then fight ye (all) against the one that transgresses until it complies with the command of Allah; but if it complies, then make peace between them with justice, and be fair: for Allah loves those who are fair (and just).

57:23

In order that ye may not despair over matters that pass you by, nor exult over favours bestowed upon you. For Allah loveth not any vainglorious boaster,-

59:9

But those who before them, had homes (in Medina) and had adopted the Faith,- show their affection to such as came to them for refuge, and entertain no desire in their hearts for things given to the (latter), but give them preference over themselves, even though poverty was their (own lot). And those saved from the covetousness of their own souls,- they are the ones that achieve prosperity.

60:1

O ye who believe! Take not my enemies and yours as friends (or protectors),- offering them (your) love, even though they have rejected the Truth that has come to you, and have (on the contrary) driven out the Prophet and yourselves (from your homes), (simply) because ye believe in Allah your Lord! If ye have come out to strive in My Way and to seek My Good Pleasure, (take them not as friends), holding secret converse of love (and friendship) with them: for I know full well all that ye conceal and all that ye reveal. And any of you that does this has strayed from the Straight Path.

60:7

It may be that Allah will grant love (and friendship) between you and those whom ye (now) hold as enemies. For Allah has power (over all things); And Allah is Oft-Forgiving, Most Merciful.

60:8

Allah forbids you not, with regard to those who fight you not for (your) Faith nor drive you out of your homes, from dealing kindly and justly with them: for Allah loveth those who are just.

60:9

Allah only forbids you, with regard to those who fight you for (your) Faith, and drive you out of your homes, and support (others) in driving you out, from turning to them (for friendship and protection). It is such as turn to them (in these circumstances), that do wrong.

61:4

Truly Allah loves those who fight in His Cause in battle array, as if they were a solid cemented structure.

76:8

And they feed, for the love of Allah, the indigent, the orphan, and the captive,-

85:14

And He is the Oft-Forgiving, Full of Loving-Kindness,

## 참고문헌

- Al-ʿArabi, M. *The Ringstones of Wisdom*. Dagli, C. (Tr.) (2004). Chicago: Kazi Publications.
- Al-Ghazālī, A. H. M. *The Ninety-Nine Beautiful Names of God*. Burrell D. B. and N. Daher. (Tr.) (1999). Cambridge: Islamic Texts Society.
- Al-Jifri, H. A. "Loving God and Loving Neighbor." in Volf, M., G. bin Muhammad, and M. Yarrington. (Ed.) (2010). *A Common Word: Muslims and Christians on Loving God and Neighbor*. Grand Rapids, MI: Eerdmans. 79-87.
- Awwad, J. B. (2009). "Who Is My God and Who Is My Neighbor? A Response to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 *Theological Review* 30(1). 78 - 88.
- Chittick, W. C. "Divine and Human Love in Islam." in Levin J. and S. G. Post. (Ed.) (2010). *Divine Love: Perspectives from the World's Religious Traditions*. West Conshohocken, PA: Templeton Press. 163 - 200.
- (2011). "The Dialectic of Love in Early Persian Sufism." *Journal of Dharma* 36(1). 99 - 113.
- Grudem, W. A. (2000).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MI: Zondervan.
- Gril, D. "Love and Affection." In McAuliffe, J. D. (Ed.) (2003). *Encyclopaedia of the Quran*. Leiden, Netherlands: E. J. Brill. 3:233-237.
- Hoover, J. (2009). "A Common Word 'More Positive and Open, yet Mainstream and Orthodox.'" *Theological Review* 30(1). 50 - 77.
- Kassis, H. E. (1985). *A Concordance of the Qur'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teregga, B. D, and David W S. (1997). *A Muslim and a Christian in Dialogue*. Scottdale, PA: Herald Press.
- Lane, E. W. (1874). *An Arabic-English Lexicon: Derived from the best and most copious Eastern sources*. London: Williams and Norgate.
- Leirvik, O. (2010). "Aw qāla: 'Li-jārihi': Some Observations on Brotherhood and Neighborly Love in Islamic Tradition."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21(4). 357 - 372.
- McAuliffe, J. D. (1991). *Qur'anic Christians: An Analysis of Classical and Modern Exege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Grath, A. (1992). *Bridge Building: Creative Christian Apologetics*. Downers Grove, IL: IVP; 김석원 역 (2013).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 서울: 서로사랑.
- Migliore, D. L. (1991).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W.B. Eerdmans.
- (2008). "The Love Commandments: An Opening for Christian-Muslim Dialogue?" *Theology Today* 65(3). 312 - 330.
- Muhammad, G. (2009).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 *Theological Review* 30(1). 5 - 43.
- (2010). *Love in the Holy Qur'an*. Muhammad, G. (Tr.) (2010). Chicago: Kazi Publications.
- Nasr, S. H. "Sunnah and Ḥadīth." in Nasr, S. H. (Ed.) (1987) *Islamic*

- Spirituality*.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97-110.
- , "The Word of God: The Bridge between Him, You, and Us." in Volf, M., G. bin Muhammad, and M. Yarrington. (Ed.) (2010). *A Common Word: Muslims and Christians on Loving God and Neighbor*. Grand Rapids, MI: Eerdmans. 110-117.
- Nickel, G. "The Language of Love in Qur'an and Gospel." in Monferrer-Sala, J. and A. Urban. (Ed.) (2009). *Sacred Text: Explorations in Lexicography*. Frankfurt am Main, German: Peter Lang. 223-248.
- Rahbar, M. D. (1960). *God of Justice: A Study in Ethical Doctrine of the Quran*. Leiden, Netherlands: E. J. Brill.
- Sabra, G. (2009). "The 'Common Word' Letter in the Context of Christian-Muslim Dialogue." *Theological Review* 30(1). 89 - 98.
- Shah-Kazemi, R. "God, "The Loving"." in Volf, M., G. bin Muhammad, and M. Yarrington. (Ed.) (2010). *A Common Word: Muslims and Christians on Loving God and Neighbor*. Grand Rapids, MI: Eerdmans. 88-109.
- Smith, W. C. "Comparative Religion: Whither and Why?." in Eliade, M. and J. Kitagawa. (Ed.) (1959) *The History of Relig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1-58.
- Tennent, T. C. (2007). *Theology in the Context of World Christianity: How the Global Church Is Influencing the Way We Think About and Discuss The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 Volf, M., J. Cumming, and M. Yarrington. "Loving God and Neighbor Together: A Christian Response to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 in Volf, M., G. bin Muhammad, and M. Yarrington. (Ed.) (2010). *A Common Word: Muslims and Christians on Loving God and Neighbor*. Grand Rapids, MI: Eerdmans. 51 - 75.
- <http://www.acommonword.com/the-acw-document/>. (검색일 2015. 03. 30)
- A Common Word. "A Common Word."
- <http://www.acommonword.com/category/site/christian-responses/>. (검색일 2015. 03. 30)
- A Common Word. "Christian Responses."
- [http://www.desiringgod.org/media/video/20080118\\_interview.mp4](http://www.desiringgod.org/media/video/20080118_interview.mp4). (검색일 2015. 03. 30)
- <http://quran.com>. (검색일 2015. 03. 30)
- The Holy Qur'an.

## ABSTRACT

Dialogue of 'Love' in a Pluralistic Society: Focusing on Christianity and Islam

Jongwon Park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xample of religious dialogue in a pluralistic society by revealing a Christian position against a Islamic position that God's love and the first and second commandments of Christianity, the love of God and neighbors, exist in Islam. On October 3, 2007, 138 Muslim scholars and leaders sent a letter entitled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 to Christian leaders to argue that the first and second commandments of Christianity is common word in Islam. The instant response of Yale Divinity School's Christian scholars was an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on the letter with over 300 Christian leaders' signatories as published in the *New York Times* on November 18, 2007. However, John Piper, a well known evangelical pastor, criticized the Christian attitude because it seemed to him that Christian responders did not articulate well Christian doctrines. In addition, Gordon Nickel, an eminent Islamic scholar, did not sign with other Christian leaders because he could not see the common ground on God's love between Christianity and Islam. Why didn't they agree with other Christians? Is the love of God and neighbors different between Islam and Christianity? From these questions, this study starts. First of all, it presents the Islamic love according to a Christian Islamic scholar, who refers to the Quran and the Islamic traditional commentators. Then, it shows that Muslim scholars and leaders, who sent the letter, insist that there are the same commandments as the common ground between two religions. Therefore, it will be presented a Christian position by Christians which is different with what Muslim scholars and leaders insist. Through this process, the big differency between the Christians' perception of Islamic love and Muslims' perception of Islamic love is revealed. Moreover, it will be revealed that even the Muslims' perception of Islamic love is various. Therefore, when it is accepted as a principle of religious dialogue in a pluralistic society that the truth claim of one religion is to be argued not by the followers of other religions but the followers of the religion, Christians can proclaim the gospel as the truth. Definitely, this kind of dialogue will reveal differences between religions, and when Christians accept and respect the differences, they are able to get an opportunity to deliver the gospel and to do love of neighbors through words and behaviors.

Key words: Christianity, Islam, common word, two commandments, religious dialogue